

‘박수무당(博數巫堂)’사진작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Baksumudang(Male Korean Shaman)’ Photographic Work

변성진*, 양종훈**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과 석사과정
(탑하우스F64 대표)*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과 교수**

Byeon Seong Jin*, Yang Jong Hoon**

Sangmyung Graduate School Dept, Digital Image
master's course*

Sangmyung Graduate School Dept, Digital Image
Professor**

1. 작품 이미지



박수무당(博數巫堂), 2018

사진, 변성진

2. 작품 설명

박수무당(博數巫堂), 2018

박수무당(博數巫堂) 정동수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무속신앙(巫俗信仰)과 굿을 일본에 전파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미국의 제자들에게 신령(神靈)을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내림굿을 해주며 무당으로서의 길을 열어주고 있기도 하다.

무당(巫堂)은 신령을 통한 길흉점복(吉凶占卜)의 전달자로서 공수(神託)를 내려 신령의 뜻을 대변해 굿당주(의뢰인)에게 전달한다. “박수는 무당 가운데 단순히 성별을 구분하는 명칭이다. 박수는 한자로 博數로 표기되며, 한자어 박사(博士)나 복사(卜師)에서 와전된 것이라

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박수는 알타이어를 사용하는 여러 민족이 남무(男巫)를 부르는 명칭과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박수는 주로 경기도·충청도·강원도 등지에서 부르는 호칭이다. 경기도 수원 지방과 동해안에서는 남무를 화랑이라고 하며, 동해안에서는 양중이라고도 한다. 양중은 남해안에서도 사용되는 호칭이며, 평안도에서는 훈장이라고 부르고 제주도에서는 심방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당이라는 말은 호칭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박수라는 명칭은 호칭으로도 사용된다. 성에 붙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정 박수’·‘김 박수’라고 하거나 또는 지명을 붙여 ‘성북동 박수’·‘청량리 박수’라고도 부른다.”

사진은 박수무당이 점신(接神)을 한 상태이다. “점신은 신령이 무당의 몸에 내려와서 의식(意識)을 다스리게

되는 상태인데, 탈혼(脫魂)처럼 무당의 혼(魂)이 몸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내려서 자의식(自意識)을 잃거나 의식이 변하는 상태가 된다.” 이 박수무당은 굿당(무당이 굿을하는곳)에서 접신을 하여 굿을 하면서 현실 세계의 과학적, 상식적으로는 증명하기 힘든 영적세계에 빠져들게 된다. 바라(篤奇)¹⁾와 같은 타악기를 치거나 무가(巫歌)²⁾를 하여 시간의 흐름을 현실과 영적세계를 이어주는 시공간적 무대로 이끌며, 무아지경(無我之境)의 상태가 되어 접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3. 작품 평론

무당은 신령으로부터 받은 영험한 기운을 가진 자로서 인간의 소원을 신령에게 전달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하여 삼라만상(森羅萬象)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장(祭司長)이자 영매자(靈媒者)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역사적 기록에서 보면 무당은 신라초기부터 존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당에 대한 언급은 삼국유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신라 최대의 역사가 김대문(金大問)이 말한 “차차웅(次次雄)은 방언으로는 무당이다. 사람들이 무당을 귀신으로 섬기고 제사를 지내렸으며, 그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다가 마침내 존경받는 어른을 자충(慈充)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신라 유리왕 19년(42) 9월 왕이 병에 걸렸을 때 무당의 조 언대로 행하여 병이 나았다는 내용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무당 중에서 여자 무당은 무녀(巫女), 만신(萬神)이라고 부르고, 남자무당은 무자(巫子) 혹은 박수(博數)로 지칭한다. 무당은 여자의 수가 월등하게 많으며, 박수가 굿을 할 때는 반드시 치마를 입고 여장을 한 채 말투, 행동 등을 여성스럽게 했으며, 남복(男服)을 그대로 입는 제주의 남자심방들과 차이를 보인다. 근래에는 무당이란 말에 천시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여 무속인(巫俗人)이란 표현을 쓰기도 한다.”

‘박수무당’ 작품은 ‘신령’과 접신하여 영적세계에 심취해 굿을 하고 있는 무당의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큐멘터리 사진적 요소로써 역사적 전통문화를 기록하는 기록물로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배경에 보이는 음식이 차려진 제단과 단군, 산신, 선녀, 아기동자, 장군 등 신령을 형상화한 조형물들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을 표현해 미지의 세계인 영적 세계를 이미지로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 1) 일명 자바라(嗒嗒羅)·발(鉞)·제금(提金)이라고도 한다. 바라는 그 크기에 따라 자바라요발(鑄鉞)·동발(銅鉞)·향발(響鉞) 등이 있으며 또한 그 용도가 다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2) 무가는 굿판에서 무당이 부르는 노래의 총칭이다.(한겨레음악대사전, 2012. 11. 2., 도서출판 보고서)

■ 참고 문헌 ■

- [1] 한국무속연구, 김태곤, 집문당, 1981년
- [2] 한국무속사상연구, 김인회, 집문당, 1987
- [3] 한국민속학개설, 이두현 외, 일조각, 1991년
- [4] 한국무속(韓國巫俗)의 연구(研究), 최길성, 아세아문화사, 1977년
- [5] 조선무속고, 이능화, 이재곤 역, 동문선, 1995년
- [6] 한국의 굿, 하효길 외, 민속원, 2002년
- [7] 굿·영혼을 부르는 소리, 김수남, 열화당, 2005년